

# 大宇重工業, 소련 첨단 항공기술 도입

— 항공기용 「탄소 브레이크 디스크」 독점 생산



대우중공업은 12월 11일 소련 국영과학기술연구소인 니그라피트(NIIGRAFIT)사와 탄소브레이크 디스크 생산에 대한 기술 도입계약을 체결했다(사진) 소련으로부터의 첨단기술 도입은 국내 여러기업에서 시도되었지만, 첨단 항공부문의 기술도입은 대우중공업이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의 독점 생산 및 공급권은 물론 해외수출도 가능하다

**대우중공업** 이 소련의 항공 기술을 도입하여 항공기용 「탄소 브레이크 디스크」의 독점 생산에 나선다.

대우중공업은 지난해 12월 11일 대우빌딩에서 소련 국영 과학기술연구소인 니그라피트(NIIGRAFIT)와 항공기용 탄소 브레이크 디스크 생산에 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에는 대우중공업의 趙孝相 상무와 니그라피트의 샤스로 부소장이 서명했는데, 계약기간은 5년이며 차후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항공기용 브레이크 디스크는 이륙시 급제동을 하거나, 고속착륙시 일정한 거리 내에서 제동이 요구될 경우, 그 성능이 불확실하거나 품질이 미달되면 항공기의 파손은 물론 인명의 상해(傷害)까지 초래하는 주요부품으로서 제작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고부가 가치 제품이다.

특히 「탄소 브레이크 디스크」는 기존의 브레이크 디스크보다 마찰력이 강해 제동력이

뛰어나며, 각종 전투기, 훈련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소모성 제품으로 미래 첨단기술로만이 생산이 가능해, 국내소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 왔었다.

소련으로부터의 첨단기술 도입은 국내 여러기업에서 시도되었지만, 첨단항공 부문의 기술도입은 대우중공업이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서, 이번 계약을 통해 대우중공업은 국내에서의 독점 생산·공급권은 물론 해외 수출권도 가지게 된다.

더욱이 탄소 브레이크 디스크 생산 기술은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첨단기술로서, 기술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부문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더욱 크다 할수 있으며, 이 부문에서는 소련이 세계적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대우중공업은 이미 지난 '88년 금속과 세라믹 등의 복합소재를 이용해 독자적 기술로 항공기용 브레이크 디스크를 개발한바 있으며, '90년부터는 일부를 국내 항공기용으로 공급해 왔다. (容)